

텔레비전 드라마 〈허준〉의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

양진문*

1. 서론
2. 역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
 - 2-1. 성장하는 영웅 - 허준
 - 2-2. 영웅의 멘토 - 유의태
3.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
 - 3-1. 영웅의 동반자 - 다희, 예진 아씨
 - 3-2. 영웅의 추종자 - 임오근, 구일서 등
4.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드라마 〈허준〉의 인물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라마 〈허준〉의 인물 형상화 방식은 실재하는 인물과 허구적인 인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극적인 기능을 다양하게 구성해 내어 기존의 역사드라마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의 인물은 크게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로 나뉜다. 역사적 인물들은 드라마의 사실성을 강화시켜 시청자에게 〈허준〉관련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허구적 인물들은 허준의 캐릭터를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드라마 〈허준〉에서 이야기의 틀을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적 인물들이지만, 드라마의 서브플롯을 통한 작가의 이데올로기 강화는 허구적 인물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초빙교수.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 허준과 유의태가 주축이 되어 중심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메인 플롯은 서자 출신의 허준이 주체로 성숙하고 완성되어 가는 ‘허준의 임무→시련→긴장(위기)→극복’ 순의 에피소드가 반복되면서 영웅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유의태는 허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조력하며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연마와 인격적인 수련을 이끌어 준다. 유의태의 수련과정은 시청자가 기대하는 휴머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극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다음으로 〈허준〉의 허구적 인물들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력자형 인물들과 연결된 에피소드는 서브플롯을 형성하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극 전체의 주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조력자의 역할은 극적 풍부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허준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의 조력자로 이루어진 극적 구성은 진지하고 무거운 사극에서 경쾌하고 빠른 사극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하고, 각 조력자별 기능을 구분하고 조력자의 등장만으로도 극적 전개를 짐작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게 극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허준〉에서 눈여겨 볼 점은 여성조력자의 역할과 기능이다. 〈허준〉에는 허준의 아내 다희와 의녀 예진아씨가 등장한다. 다희와 예진은 이전 남성 영웅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극과 달리 남성인물 허준의 성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허준이 의원으로서 성공하기까지 사적 조력자 다희와 공적 조력자 예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다희는 허준의 가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예진은 의학적 성장을 돕는다. 여성조력자의 역할이 허준의 애정의 대상으로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극의 전체적인 주제와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드라마 〈허준〉에서는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감성적 멜로드라마적 요소와 코미디드라마적 요소가 다희, 예진아씨, 임오

근, 홍춘 등과 같은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대중들에게 이 드라마가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역사드라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허준, 멜로드라마, 코미디드라마, 영웅서사, 텔레비전 드라마)

1. 서론

본 연구는 드라마 〈허준〉의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드라마의 인물은 크게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로 나뉜다. 역사적 인물인 허준과 유의태가 주된 서사의 중심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면, 허구적 인물들은 서사의 생동감을 불려일으키고 풍부한 에피소드를 유발하여 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극적으로 교훈과 재미의 조화를 이루는 양상은 기존 역사 드라마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상을 인물 형상화 방식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기존 역사드라마와 〈허준〉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엇이 〈허준〉을 ‘국민 드라마’로 만들었는지, 그 인기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준〉이 갖는 드라마사적 의의는 무엇인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역사드라마 〈허준〉(1999~2000)은 시청률 65%, 점유율 81%라는 역사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¹⁾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역사드라마 ‘열풍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에 따르면, 형식은 역사드라마이지만,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역사드라마가

1) 권재현, 『왜 사극이 뜰까? 여인천하 태조왕건 등 인기』, 『동아일보』 2001.6.14 기사에 제시된 역대 사극 평균 시청률표 참조.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퓨전 역사드라마’, ‘포스트 모던 역사드라마’로 불리기도 하고,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 주로 활용하던 정사(正史)가 아닌 야사를 배경으로 역사를 엔터테인먼트의 요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탈역사’, ‘장르 혼합’ 등의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드라마 〈허준〉에 관한 기존 연구는 황인성²⁾, 주혜정³⁾, 강호진⁴⁾에서 이루어졌다. 황인성, 주혜정은 이 드라마가 갖는 대중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고, 강호진은 영상텍스트를 중심으로 드라마의 미학적 특성을 논의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극중 인물 분석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 드라마가 갖는 허구적 특성이 드라마의 외연을 넓혔고, 특히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이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역사 드라마와의 차별성을 제 공한다고 보고 있다.

드라마 〈허준〉에서 허구적인 인물이 부각되었던 것은 〈허준〉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과 연결된다. 사실 〈허준〉은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비판을 적잖이 받았다. 허준의 일대기가 과장되었고, 스승 유의태와 허준의 관계가 동시대가 아닌 허구라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고인이 된 작가 이은성이다. 〈허준〉은 드라마로 만들어진 텍스트이다. 허준은 실존하였던 인물이지만 그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자로 태어나 당시 최고의 반열인 정일품 보국승록대부에 올랐으며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는 사실 외에는

2) 황인성, 「드라마 허준의 장르론적 특징과 대중성에 대하여」, 한국방송비평회 펄뎀/최창섭 엮음, 『방송비평의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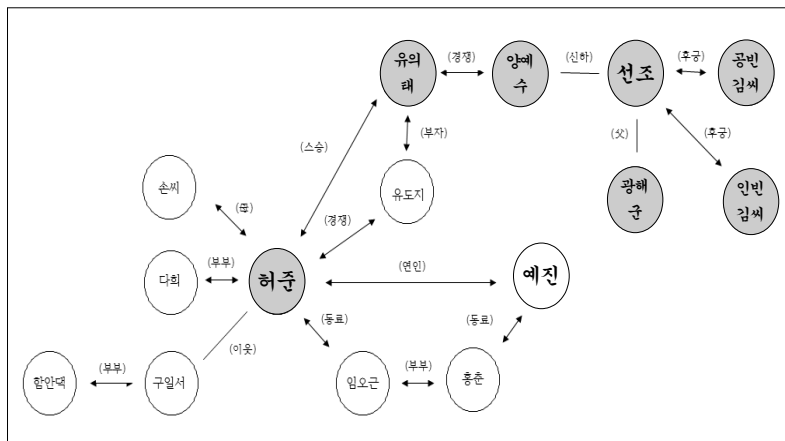
3) 주혜정, 「TV사극 장르를 둘러싼 제작자, 텍스트, 수용자간의 역학: KBS 〈태조왕건〉과 MBC 〈허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 강호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영상스타일 연구: MBC 〈동의보감〉과 〈허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모두가 꾸며진 이야기인 셈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존 인물 허준을 고증할 만한 사료가 없다는 것은 이 드라마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허준〉의 역사적 사실에 가미된 허구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드라마 속 허구적 요소들은 자칫 단순해질 수 있는 극작품에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허구적 요소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전의 역사드라마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개성적 캐릭터를 가진 조력자의 배치이다. 〈허준〉에서는 영웅으로 재창조된 허준과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성적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개성적 캐릭터의 조력자는 역사적 인물이 담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인물 관계 구조도〉



위의 그림은 〈허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음영 처리된 인물들이 기록상에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들이고, 음영 처리되지

않은 인물들은 작가가 창조해낸 허구적 인물들이다. 역사적 인물들은 단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반해, 허구적 인물들은 허준을 중심으로 역동적 관계를 맺고 있다. 드라마에서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역사적 인물들이지만, 드라마의 구성과 관계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허구적 인물들이다. 즉,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 허준과 유의태가 주된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면, 임오근을 비롯하여 유도지, 예진 아씨 등의 허구적 인물들이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실존 인물과 허구 인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입체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극적 구성이 극대화 된 것이다.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서사의 전개를 이어가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허준〉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조화는 극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형상화되는 방식을 밝힘으로써 기존 역사드라마와 〈허준〉이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2. 역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지만, 전체의 구성이나 전개과정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fact)일 필요는 없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드라마로 보이는 한 허구(fiction)가 가미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이 바로 다큐멘터리와 구분된다. 드라마 〈허준〉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은 주된 플롯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인물들과 구분되지만 이들도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재창조되었다는 점에서는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다. 역사적 인물들이 기록에 의거해 완벽하게 재연되었다는 식의 해석보다는 드라마 〈허준〉에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형상화하고 강화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허준〉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인 허준과 유의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1. 성장하는 영웅 - 허준

허준은 장자 혈통이 아닌 서자라는 미천한 신분을 지니고 태어나 혈통에 의한 수혜에서 배제된 채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해야만 하였다. 즉, 그는 서자 신분으로 왕의 주치의가 되고 정일품 보국승록대부까지 오르는 입지전적 인물이 된다. 그런데 허준이 명의로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은 모두 허준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준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오르거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신보다 민중들을 치료하거나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환자들을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령 허준은 자신의 아들 겹이가 돌립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먼저 돌보지 않고, 동네 주민들을 먼저 치료하며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39회) 이런 장면들은 허준이 명의로 성장하는 과정이 민중의 영웅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허준이 명의로 성장하는 과정은 영웅서사의 성장담과 궤를 같이 하지만 기존의 영웅서사와 달리 타고난 특출함을 바탕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식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한 단계씩 성숙과 성장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새롭게 받아들여졌다. 구체적으로는 허준을 중심으로 한 영웅 이야기는 조동일⁵⁾의 『한국소설의 이론』에서 제시한 영웅의 일생과 일부분 유사한 면이 있다.

- ①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② 잉태와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 ③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 ④ 어려서 고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⑤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⑥ 자라서 다시 위기를 맞는다.
- ⑦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

조동일은 한국영웅소설의 구조로 1번부터 7번까지 제시하였다. 이는 출생의 비범함부터 고난의 극복까지 근대 이전부터 친숙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영웅소설의 구조이다. 그런데 드라마 〈허준〉에는 ①~④번의 모습보다는 ⑤~⑦번이 드라마의 주된 플롯을 이룬다. 서자로 팔시받던 허준은 유의태를 만나 의원이 되기 위해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장해 나간다. 즉, 드라마는 인간적 한계로 인한 시련과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여 마침내 최고의 명의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은 드라마 전회에 걸쳐 반복되는 ‘허준의 임무→시련→긴장(위기)→극복’ 순의 에피소드⁶⁾로 뒷받침된다.

5)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95쪽.

6) 대표적인 에피소드로는 자살을 시도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의 부탁을 받고 허준이 살려내어 유의태에 불려가 테스트 받는 장면(11-12회), 창녕 심대감 댁 부인의 증풍을 치료하면서 유의태의 문하에서 쫓겨나는 장면(13-16회), 과거 길에 진천에서 민초들을 치료하다가 과거를 치르지 못하는 장면(21-24회), 내의원에서 구안와사에 걸린 공빈의 남동생을 치유하는 장면(42-44회) 등이 있다.



〈장면 1 (23회)〉



〈장면 2 (44회)〉

동네 주민1 : 저희 같이 헐벗고, 굶주린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까지 늦추
어가며 의술을 베풀어주신 분이요.. 이 의원이십니다. 의원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죄라면 의원님을 붙잡은 저희들한테 있으니, 허
의원님을 풀어주시고, 저희를 대신 벌하여 주십시오.

사 또 : 이 자의 오라를 풀라.. 이 의원을 동원 협실로 모셔라.

(드라마 〈허준〉 제23회)

동료 내의원 : 어의영감.. 허준에게 3~4일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허준은 반드
시 마마의 병환을 고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예수 : 아이 미친것들아.. 반위라고 반위.. 그건 불치병이야.. 고치긴 뭘
고치단 말야..

허 준 : 반위는 고칠수 있는 병입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양예수 : 장난하냐? 불치병이라고.. 못 고쳐..!

허 준 : 고칠 수 있습니다..!

양예수 : 대체 불치병인데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이냐..!

허 준 : 저는.. 반위를 본적이 있습니다..!

양예수 : 미친 거 아냐? 무슨 또 반위를 봐..! 네놈이 사람 배를 갈라서 오장
육부를 보기라도 했던 말이냐..!

허 준 : 네- 전 사람의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본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의 시신을 갈라.. 위의 모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 허준의 말에 모두들 충격받는다.
- 그때 마침, 허준이 치료하던 마마의 병세가 완치되었다는 전갈이 온다.
- 마마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허준.

〈 중 략 〉

양예수 : 나는 유의태와 ‘구침지회’라는 치기어린 침술대결을 벌여 패배하고, 그 약속대로 조선 제일의 명의는 유의태라고 외친 적이 있다. 평생 그만한 치욕은 처음이었고, 그때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병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허준에게 내놓고, 자네 같은 제자를 길러냈으니, 이제 유의태를 조선 제일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이 억울하지 않다. (드라마 〈허준〉 제44회)

〈장면 1〉은 허준이 누명을 쓰고 관아에 잡혀간 부분으로, 허준에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와 사또에게 허준의 석방을 간청하고 있다. 허준은 한양으로 내의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중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을 쪼개 말을 구해 온다는 돌쇠의 말만 듣고 있다가 공변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장면 2〉는 공빈 동생 예직의 반위(위암)에 대한 희언(손목이 잘림)으로 극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이다. 공빈은 재주도 없이 거짓 약속을 일삼는 의원을 궁중에 둔다면 다시 또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 양예수는 허준의 교만과 자만을 별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침을 놓고 뜸을 뜨던 허준의 오른 손을 작두로 자르라고 명하여 칼날 위에 손을 얹도록 한다. 작두로 허준의 손을 자르려는 순간 공빈 처소에서 사람이 달려와 병자가 나왔으니 형벌을 멈추라고 한다. 공빈은 ‘자신이 참을성 없이 동생의 말만 듣고 허참봉을 오해한 것을 용서해 달라.’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유의태의 정적 양예수도 허준의 스승인 유의태를 조선 최고의 명의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허준은 스승의 명예까지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허준이 고난의 순간을 간신히 벗어나고 스승과 조력자들에게 까지 도움을 준다는 식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드라마의 주된 플롯을 이룬다. 그러나 허준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반복되는 시련과 극복의 구조는 드라마를 통한 주제 강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컸지만, 고정적인 패턴이 되어 뒤로 갈수록 시청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반감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구성적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허준〉이 시청자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복되는 에피소드의 패턴이 허준이라는 인물의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2. 영웅의 멘토 - 유의태

유의태는 허준이 살았던 시대보다 100년 뒤인 숙종 때의 인물로 실제로는 허준과 접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⁷⁾ 드라마 속의 스승 유의태는 시청자들에게 의술인에 대한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허준이 영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그는 미션을 통해 허준이 한 단계씩 성장할 때 허준 스스로 올바른 선택에 이를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의태는 직접적으로 의학적 지식을 알려주거나 의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는 다만 허준이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가운데 답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이자 멘토라 할 수 있다.

유의태는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공홀히 여기는 마음가짐

7) 승정원 일기(숙종 39년(1713년) 12월 16일) 참조.

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약방을 찾아온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심 성의껏 진료한다. 처음에 의술을 배우겠다고, 허드렛일부터 시켜달라고 의원을 찾은 허준에게 다른 머슴들과 같이 물 길기, 약초 캐기 등의 일 부터 시키는데, 서릿발 같은 스승의 위엄으로 의술의 본래 가치와 의원의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했을 때는 어김없이 호통을 치며 꾸짖는다.

“실수를 했느니... 미쳐 몰랐느니... 사람을 죽이고도 변명만 늘어놓을 놈이구나!! 칼 든 무사보다, 독을 품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의원의 손이야... 단 한번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의원의 손이야...!! (드라마 〈허준〉 제4회)

의원은 영달의 길이 아니다. 의원은 돈을 버는 길이 아니야... 영달의 꿈이 있다면 중국말을 배워 역관이 될 것이지, 돈 버는데 욕심이 난다면 장사치가 될 일이지... 의원의 소임은 병자를 보살피는 일이다. 그것이 첫 번째 소임... 둘째도 셋째도 의원의 소임은 그것뿐이야... 너는 허준이에게 졌다.

(드라마 〈허준〉 제24회)

첫 번째 인용은 허준이 물을 잘못 길러 와서 꾸중을 듣는 부분으로 평계를 대는 허준을 혼도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아들 도지가 살려달라는 병자들을 외면한 채 과거시험을 본 아들을 꾸짖는 부분으로 한양으로 가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또 허준이 성대감 부인의 병을 치료하고서 보답으로 서찰(소개장)을 받은 후, 그걸 이용해서 관직에 쉽게 나아갈 생각을 잠시나마 품었을 때, 격노하여 허준이 보는 앞에서 서찰을 불태우고 그를 약방에서 파문시키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는 허준이 나중에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 다시 그를 받아들인다.

유의태가 허준의 지도자이자 멘토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가 반위(위암)에 걸렸을 때, 허준에게 자기 시신을 해부하여 그것으로 의술 정

진의 계기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한 장면이다. 자신의 친아들 도지의 인품이 허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까지 허준에게 해부의 기술을 전수하고자 한 것이다.



〈장면 3 (30회)〉



〈장면 4 (30회)〉

유의태 유서 : 허준은 보아라. 내 죽음을 누구보다 서러워할 사람이 너임을 알고 이 글을 네게 남긴다. 나는 내게 닥쳐 오는 죽음을 보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그것은 태어나던 순간 결정된 모든 생명의 예정된 길이니, 서러워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육십 평생을 살다가는 나같은 자에게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을까만은 소리없이 닥치는 죽음의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로부터 세상이 바라는 유용한 사람들, 평생 타인을 위해 덕을 쌓은 귀한 인물에서 호강 한 번 못해 보고 고생만 하다 죽은 측은한 인생까지.. 이들 모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정체를 밝혀 그들로 하여금 천수가 다하는 날까지 무병하게 지켜줄 방법은 없는가? 이는 의원된 자의 본분이요, 열 번 고쳐 태어나도 다시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너무도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허나 나 또한 불치의 병을 지니게 되었으니, 병과 죽음의 정체를 캐낼 여력이 이미 없다. 이에 내 생전의 소망을 너에게 의탁하여 병든 몸이나마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명심하거라.. 이 몸이 썩기 전에 지금 곧 내

몸을 가르고 살을 찢거라.. 그리하여 사람의 오장과 육부의 생김새와 그 기능을 확인하고, 몸속에 퍼진 360마디의 뼈가 얹히는 이치와 열 두 경락과 요소를 살펴, 그로써 네 의술의 정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장면 3, 4〉는 유의태가 유서와 함께 자결하고 해부를 맡기는 장면인데, 자신을 해부하여 의술 정진의 계기로 삼으라는 내용의 유서를 허준이 읽고 있다. 허준은 어찌 자신의 손으로 스승님의 몸에 칼을 댈 수 있겠느냐며 단호히 거부하지만, 삼적과 광익의 설득으로 마침내 해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정리한 후, 밀려오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신의 옷옷을 벗어 의태의 시신을 덮고 어깨를 떨며 오열한다.

유의태가 자신의 몸을 허준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강조해왔던 심의로서의 자질을 허준이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주요 가치는 의료인의 자기희생이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그의 선택은 드라마에서 의술인이 갖춰야 할 자질, 자기희생에 관한 주제의식을 부여한다.

유의태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실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허구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허구적인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유의태는 허준이 영웅서사의 플롯을 이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허준이 평범한 인물에서부터 주체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연결시켜 극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다.

3. 허구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

〈허준〉의 개성적 캐릭터의 허구적 인물들은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조력자형 인물들은 수적으로도 많이 포진되어 드라마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드라마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드라마 전반의 유연한 흐름과 곳곳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진지하고 무거운 사극에서 경쾌하고 빠른 사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개성적 캐릭터 조력자 유형의 인물들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 〈허준〉은 허준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 간의 관계, 즉 애정구도, 인정과 신뢰, 도움의 주고받음 등에 관한 풍부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허준에 관한 드라마지만 허준만의 드라마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3-1. 영웅의 동반자 - 다희, 예진 아씨

〈허준〉에서의 대표적 여성조력자는 다희와 예진이다. 다희는 양반가의 딸로, 아버지가 대역죄인 누명을 쓰자, 병든 아버지와 도망치던 중 같이 쫓기는 신세였던 허준과 만나게 된다. 허준은 그녀 아버지를 간호하고, 장례를 치루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녀에게 끌리게 되고, 다희 역시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게 된다. 아버지가 역적 누명을 벗고 그녀도 신분은 복원되었을 때, 상민인 허준이 양반 여인과 결혼하는 건 금지였기 때문에 허준 어머니는 허준에게 그녀를 잊으라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해 결국 결혼하게 된다. 양반 신분까지 버리고 허준과 결혼해 온갖 고생을 한 조강지처이다. 허준이 내의원에 합격하기 전 너무도 힘들게 살지만, 인술을 행하는 남편을 항상 존경하며 묵묵히 참고

전디는 인물이다.

예진은 어릴 적부터 유의태 약방에 거두어들여져 의술을 배웠다. 의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진심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허준을 짝사랑하게 되지만, 그가 이미 배우자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가슴 앓이하며 지켜보았다. 다희가 허준을 잊지 못해서 산음 땅으로 내려오던 중 쓰러져서 양태가 그녀를 유의태 의원에게 데려온 것까지도, 허준 어머니 손 씨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 금지된 통혼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을 알고도, 그녀에게 잊고 떠나라고 부탁한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희가 마음을 바꾸어 떠나려고 했을 때,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허준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 것도 그녀였다. 유의태의 옛 동기인 삼적대사가 세운 삼적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허준 가족이 생계가 곤궁해졌을 때 간직하던 패물을 팔아 쌀을 사주기도 하는 등,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나중에는 그녀도 의녀로 입궁하는데, 표현은 못하지만 그 후로도 허준을 존경하고, 마지막에는 곱게 늙은 그녀가 허준의 묘를 찾아오는 장면은 많은 여운을 남긴다.

이들은 한평생 허준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헌신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여성들로 묘사된다. 이밖에도 홍춘, 채선, 소현 등의 의녀들이 등장하여 허준을 향한 존경과 때로는 사모의 감정을 가지기도 하며, 이러한 여성 조력자들과의 관계는 허준을 중심으로 유도지, 이정명 등의 다른 남성인물들 간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멜로드라마 플롯은 주인공 허준이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동기유발로써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허준의 인간미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엄숙하고 딱딱한 사극 분위기에 새로운 감성적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기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예진은 허준에게 연정을 품고 헌신적으로 허준을 돕는 인물로 묘사된

다. 다희는 허준의 아내로서 역시 존경심을 갖고 허준을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진과 다희는 허준을 중심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허준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예진이 허준과 다희의 조출한 결혼식을 지켜보는 장면(8회), 허준이 유의태로부터 파문당한 후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 예진이 자신의 패물을 팔아 허준 집 앞에 쌀가마를 몰래 두고 오는 장면(17회), 오랜 이별 후에 허준과 예진이 재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희가 쓸쓸해하는 장면(36회), 입직을 서는 허준에게 보낸 옷가지 속에 들어있는 다희의 편지를 발견하고 심란해하는 예진의 모습에서 허준을 향한 두 여인의 애정과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희가 남편의 입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예진은 의녀로서 허준을 보좌하는 동료애적 감정으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두 여성 조력자의 사랑과 헌신은 허준이 명의가 되기까지의 극 전반에 걸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인간적 영웅으로서의 허준을 형상화하는 데에 일조한다. 다희와 예진의 경우 허준과 애정을 기반한 남녀관계의 구도가 아닌 사적, 공적 영역에서 동반자로서 협력관계에 있다. 그러나 여성조력자의 무조건적 사랑은 논리적이라기보다 감상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허준〉의 다희와 예진의 희생은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허준 혹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서 여성 조력자의 성장과 주체적 역량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허준을 중심에 둔 이들 여성과의 삼각구도가 진부한 애정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는 점은 이전 사극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진이 전문 직업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사랑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멜로드라마⁸⁾적 성격은 여성 조력자의 한

계이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희 : (미소떠면서) 옛날 대역죄인의 오명을 쓰신 아버님을 모시고 북청으로 유배갔을 때 살던 집은...금방 쓰러질것 같던 움막이었습니다. 그때... 군불도 지피지 못하고 모질게도 추웠던 겨울을 나면서...한없이 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긴...바람막을 올타리도 있고...비 피할 지붕이 있는데 누추하다니요... 더구나 지금 제 곁엔 서방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편히 사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왕 의원이 되기로 작정했으면 유의원보다 더 명망있는 명의가 되십시오. (...중략...) 여기...산음땅이 아니라... 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의가 되셔야 됩니다. 서방님이 천한 신분이라고 받아온 모멸과 천대를 이기는 길은 그 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내조할 것입니다.

(드라마 〈허준〉 제10회)

예진 : (소리) 허의원님...세상에 나서...지금 이 순간처럼...호사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진귀한...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께안 나인들의 도움을 받으며...몹단장까지 하였습니다. 면경에 비친 내 모습은 왜 이리...곱던지...너무 고운 내 모습. 이...먼길 가기 전에...호사스런 수의를 걸치고...정성을 다해 염을 받는 망자인가 싶어...자꾸 눈물만 났습니다. 산음을 떠나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허의원님과...같은 하늘아래서 대면하고 살았던 날들이...마치 꿈 인양 싶습니다. 제 꿈이 허망하게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저는 다시 먼길 떠납니다...부디...허의원님이 소망하는 뜻을 이루십시오.

(드라마 〈허준〉 제48회)

여성 조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애정의 삼각관계는 드라마에 멜로 드라마적 감성을 불어넣지만 중요 갈등 요소가 아닌 허준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결과적으로 허준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서민에서 영웅이 되기까지 허준의 역사적 기록과 영웅서사의 관습을 따른 플롯은

8) 윤석진은 1930년대 멜로드라마의 특징으로 ①사랑하는 남녀가 있다. ②이들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헤어져야 하는 시련을 겪는다. ③환경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별(죽음)을 한다. 이런 구도가 최근까지도 조금씩 변형되어 이어지고 있다.

허준을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낼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허균적으로 창조된 여성조력자의 등장은 멜로드라마의 관습을 가미하여 극적 재미와 긴장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허준을 입체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만들어 준다.

다희와 예진이 이전 역사적 남성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극과 다른 점은 남성인물 허준의 성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허준의 공적인 성공을 위해 헌신을 다하며, 사적(다희), 공적(예진)인 부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삼각관계를 연상시키는 구도를 자아내어 허준이 인간적인 갈등을 품고 있는 인물임을 그려낸다. 전형적 멜로드라마가 애정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데 반해 이 드라마에서는 애정보다는 허준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 여성 조력자들의 애정어린 헌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멜로드라마에서처럼 여성인물들이 허준이 가진 애정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제와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였겠지만 〈허준〉에서는 이들을 능동적인 조력자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드라마는 물론 멜로드라마와도 차이점을 드러낸다.

3-2. 영웅의 추종자 - 임오근, 구일서 등

예진과 다희 이외의 조력자형 인물들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허준〉에서 양태, 구일서, 임오근, 함안택 등 허준 집 주변의 서민들과 만경, 학도, 명원, 상화 등의 해민서 동료들은 개성 강한 캐릭터 구축으로 플롯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주변 조력자들의 주요 역할은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소탈한 웃음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 허준의 인물 됴됨이와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허준이 난관을 겪고 실패를 눈앞에 두었을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로 인해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 가미된 코미디적인 요소⁹⁾는 경직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드라마와 시청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허준〉의 조력자 캐릭터인 임오근(임현식 분), 구일서(이희도 분), 함안매(김해숙 분), 홍춘(최란 분)은 시종일관 주인공 허준의 올곧은 성품과 인간적인 풍모를 극대화해 주며, 훈훈한 민초들의 삶과 정서를 대변해 주는 코믹 캐릭터였다. 임오근과 구일서의 애드립이 그대로 방송되었던 ‘어서 가세’, ‘홍~춘’, ‘잘 자 내 꿈꿔’ 같은 역사드라마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사와 익살스런 표정은 현대극과 역사드라마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즐거움을 주었다.



〈장면 5 (60회)〉



〈장면 6 (46회)〉

구일서 : “아이구 그 양반 날개를 달았나. 어찌 끝도 없이 올라가나 그래, 영?
영감마님 대하기도 껄끄러웠는데, 대감마님이라니. 아이구 무서워라.”
(드라마 〈허준〉 제60회)

9) 코미디 장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유희,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실천, 2007, 23쪽.

허 준 : 오근이 형님은 저와 십수년을 알고 지냈지만, 정말 좋은 분입니다.

홍 춘 : (어쩔 줄 몰라한다)

(드라마 〈허준〉 제46회)

〈장면 5〉은 허준이 정일품 보국승록대부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으로, 허준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벼슬로 인하여 이제는 마주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 그렇지만 양태는 허준의 인품과 한결같은 성품을 언급하면서 허준을 똑같이 대해도 된다는 것을 웃음으로 풀어내고 있다. 〈장면 6〉은 허준이 홍춘에게 지금 임오근이 심병(상사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임오근을 십수년을 알고 지냈고, 좋은 분이라면서 홍춘을 설득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주변 조력자들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홍춘은 당황한 기색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

주변 조력자들은 허준과 인연을 맺은 후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허준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은 허준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준이 그들에게 동료로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허준은 임오근이 내의원 시험을 볼 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준비 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주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특히 임오근이 홍춘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허준의 지혜와 재치에서는 허준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인공과 조력자의 상호적 관계는 일반적인 영웅서사와는 방향을 달리하는 부분으로 허준을 평범한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된다. 웃음이 주체와 대상이 맺는 관계와 맥락에 따라 원인과 효과가 다르다. 허준과 상하관계나 권력관계가 신분이나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는데 웃음을 삽입하면서 친근하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 허준을

만들어준다. 이런 부분들은 허준이 대립해야 할 적대자를 만날 때 싸움이나 무력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싸움과 대립보다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변의 코믹한 인물들, 특히 임오근과 구일서 등이 펼치는 하위 플롯들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중심 플롯이 만들어내는 긴장을 이완시켜줄 수 있었다. 또한 주변 인물들과 허준의 상호적 관계를 통하여 허준의 인간적 면모와 영웅성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허준과 개성적 캐릭터의 허구적 인물들 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인해 허준의 평면적인 영웅담은 해소될 수 있었다.

4. 결론

〈허준〉의 주요 인물 형상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주인공 허준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긴장감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주변 조력자들로 인해 에피소드가 추가되고 극의 재미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영웅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허준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왕의 주치의가 되었고, 정일품 보국승록대부까지 오르는 입지전적 인물이 되었다. 유의태는 허준에게 미션을 던져주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최고의 지도자이자 멘토 역할을 하였다. 멘토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허준에게 해부의 기술을 전수하고자 자결하는 장면이다. 예진과 다희는 허준에게 연정을 품었지만 애정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허준의 성장을 돕는다. 임오근과 그 밖의 개성적 캐릭터의 조력자 인물들은 허준이 난관을 겪고 실패를 눈앞에 두었을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준다.

드라마 〈허준〉은 에피소드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트렌디 드라마와 흡사한 서사구조를 지닌다.¹⁰⁾ 64회분의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히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기승전결식 구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앞의 에피소드를 몇 개 놓쳤다고 해서 그 다음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몇 회분의 에피소드를 놓친 시청자들도 쉽게 〈허준〉 앞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시청자의 드라마 몰입과 재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스토리가 아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개성적 캐릭터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다양한 개성적 캐릭터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상이한 장르적 요소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허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웅 서사의 시퀀스와 허준과 예진 그리고 유도지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멜로드라마 시퀀스, 임오근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가벼운 코믹 시퀀스들이 각각 독자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특히 지속적으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극 전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물론 매회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편적인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신세대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형상화 방식의 특성은 대중들에게 이 드라마가 새로운 유형의 역사드라마,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드라마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주혜정, 『TV사극 장르를 둘러싼 제작자, 텍스트, 수용자간의 역학: KBS 〈태조왕건〉과 MBC 〈허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3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근홍, 권성창 연출, 최완규 극본, MBC 2013, 〈구암허준〉 영상물.

문화방송, 『MBC 연감』, 1984-2009.

이병훈 연출, 최완규 극본, MBC, 1999, 〈허준〉 영상물.

2. 논문 및 단행본

강호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영상스타일 연구: MBC 〈동의보감〉과 〈허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권오현, 『TV드라마 〈허준〉 성공의 서사적 환경』, 『내러티브』 제2호(가을·겨울), 2000, 234-257쪽.

김강원,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에서의 역사 서사 연구』, 『어문논집』 제38집, 중앙어문학회, 2008, 147-169쪽.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_____,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2. 역사허구물』, 이론과 실천, 2009.

_____,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4. 코미디』, 이론과 실천, 2013.

문관규, 『1990년대 한국 코미디 연구: 희극장면과 아버지 재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박노현, 『悲劇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다모〉와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6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9, 461-491쪽.

_____, 『텔레비전 드라마와 역사적 상상력: 역사-드라마의 상호텍스트성과 아나크로니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4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3, 387-414쪽.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추노〉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_____,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용의 눈물〉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129-165쪽.

_____,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야담(野談) 수용 과정 연구』, 『인문학 연구』 통권 9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17쪽.

양근애, 『TV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309-343쪽.

오덕현, 『TV 사극의 역사재현과 저항적 의미생산: 〈대왕세종〉과 〈뿌리깊은나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석진, 『TV드라마의 플래시백 기법 고찰-〈프라하의 연인〉과 〈굿바이 솔로〉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29집, 한국비평문학회, 2008, 263-295쪽.
- _____,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제3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301-323쪽.
- _____,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 『비평문학』 제48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235-279쪽.
-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드라마 〈허준〉 제작일지』, 한국방송비평회/최창섭 엮음, 『방송비평의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1.
- 정은이, 『텔레비전 사극의 진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주혜정, 『TV사극 장르를 둘러싼 제작자, 텍스트, 수용자간의 역학: KBS 〈태조왕건〉과 MBC 〈허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진만, 『드라마 허준의 제작과정과 특성』, 한국방송비평회 펴냄/최창섭 엮음, 『방송비평의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1, 28-37쪽.
- 황인성, 『드라마 허준의 장르론적 특징과 대중성에 대하여』, 한국방송비평회 펴냄/최창섭 엮음, 『방송비평의 실제』, 한울 아카데미, 2001, 13-28쪽.
- _____, 『역사 드라마 〈허준〉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텍스트 내적 전략과 텍스트 외적 조건에 관한 고찰』, 『프로그램/텍스트』, 한국방송진흥원, 2000, 123-146쪽.

Abstract

A Study on the Way of Character Shaping in the Soap Opera 〈Heo Jun〉

Yang, Jin-Mun(Honam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 of characterization in the television series entitled “Hur Jun.” The method of characterization in “Hur Jun”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other historical dramas, in that the complex and dynamic arrangement of the real-life figures and fictional characters allows a variety of dramatic functions to be configured.

The characters that appear in this drama are largely divided into historical (actual) and fictional characters. The historical characters reinforce the realism of the drama, facilitating the acceptance of stories related to Hur Jun by viewers as true facts, while the fictional characters help further flesh out the character of Hur Jun. Though the historical characters shape the story framework of “Hur Jun,” the writer bolsters the id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drama through its subplots featuring complex groupings of the fictional characters.

First, the central narrative revolves around Hur Jun and Yoo Ui-tae, the historical characters who actually existed. The main plot focuses on the evolution of Hur Jun from a *seoja* (illegitimate son) maturing into a hero through the repeated pattern of episodes, namely, ‘Hur Jun given a task à trial à tension (crisis) à overcoming.’ Yoo Ui-tae discovers Hur Jun’s talent and supports him through the training of his skills as a doctor and as a person. The scenes of training of Hur Jun by Yoo Ui-tae were built on an appeal to humanism, which met viewers’ expectations and subsequently elicited viewer engagement and empathy.

Next, the fictional characters in “Hur Jun” serve as supporters of Hur Jun. The episodes connected with the supporting characters constitute the subplots and each of such episodes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drama. Not only do these supporting roles enrich the drama as a whole, but they also add substance to the character of Hur Jun. The dramatic structure that feature the diverse

supporting characters helps lighten the mood and turn this otherwise serious and somber historical drama into a more light-hearted drama. It also allows viewers to better understand the story and make inferences about what will happen just by having the supporting characters appear because the supporting characters are clearly delineated. The functions of the female supporting characters are particularly worthy of note: In “Hur Jun,” there are Da-hee, Hur Jun’s wife, and Lady Ye-jin, a nurse. Unlike previous historical dramas featuring male characters as protagonists, Da-hee and Ye-jin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growth of the male character Hur Jun. Da-hee, a supporting character in the domestic sphere, and Ye-jin, a supporting character in the public sphere, each play a pivotal role in the success of Hur Jun as a doctor. Dae-hee makes up for the deficiency of Hur Jun’s role as the head of their household, while Ye-jin aids Hur Jun’s growth in his medical career. If these female supporting characters were only the love interests of Hur Jun,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drama to remain faithful to the overall theme and maintain tension.

In the drama “Hur Jun,” melodramatic and comedy-dramatic elements, which seldom coexist in other historical dramas, are realized in the characterization of such fictional characters as Da-hee, Ye-jin, Im Oh-geun, and Hong Chu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drama allowed “Hur Jun” to be recognized as a new form of historical drama that offers viewers messages and entertainment at the same time.

(Key Words: Heo Jun, melodrama, comic soap opera, hero narrative, television drama)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2일